



경제분야 제2차 TV토론 새누리당 박근혜, 통합진보당 이정희, 민주통합당 문재인(왼쪽부터) 후보가 10일 밤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경제 분야 제2차 TV토론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협뉴스

새누리·민주당 광주·전남지역 세부 공약 점검

차, 광주외곽고속도로… 文, 군비행장 이전

18대 대선을 9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 지역별 대선 공약을 확정지었다. 광주·전남지역 공약으로 새누리당은 14건, 민주통합당이 16건을 제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광주·전남지역 주요 공약을 뒷받침하는 세부 공약도 제시했다. 양 당이 내놓은 광주·전남지역 세부 공약을 조망해본다.

▷새누리당=새누리당은 광주를 자동차 100만대 생산과 그린시티 조성 지원을 위해 평등산단 및 진곡산단에 그린카 상용화 생산라인을 유치하고 부품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광주·전남 정책 공약

광주

-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
- 아시아 문화중심도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지원
-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전남

-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추진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 전남~경남간 현리대교 건설 적극 검토
-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 우주항공 체험 관공역구 조성 추진
- 광주~원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 관광 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 방안 강구

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공약으로 선정됐다. 여수~남해군을 연결하는 가장 한려대교 건설은 현재 기본 계획 수립공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과 그린시티 조성 사업도 박 후보의 공약에 반영됐다.

▷민주통합당=우선 민주당은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문화예술 공원을 조성하고 아시아 문화전당 내에 국립 미술관을 설치하는 한편 문화콘텐츠 연구관과 송암 디지털문화산업단지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국학 호남 진흥원을 설치, 호남지역의 유무형 유산에 대한 연구사업 등을 수행, 호남학을 진흥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광주·전남 정책 공약

광주

- 광주 삼동거류촌 설립 및 광주은행 한도은행화
- 민주·인권·평화센터와 5·18 민주광장 조성 지원
- 국립 미술관 설치 추진 등 아시아 문화예술의 허브도시 구축
- 지탄소 친환경 시범도시로 육성
- 광주 균형개발과 무등산 방풍포대 조기 이전
- 빛고을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
-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구축
-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산업 복합단지) 통합 서비스 산업 고도화
-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지원

전남

- 여수세계박람회장 해양관광 특구 개발 등 동북아 해양관광·레저도시 육성
- 국립 종축사업소 분원 설치 등 3농(농민·농촌·농업)혁신 프로젝트 추진
- 신의~하의권 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양식 혁명 기반 구축
- F1 대회, 범정부 차원 지원 등 명실상부한 세계적 대회로
- 나노산업단지 조성 등 혁신도시 연계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지원.
- 무인공항 활성화와 나로우주센터 일대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
- 동부권을 미래형 첨단 물류거점, 스마트 소재 산업 메카로 조성.

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를 저탄소 친환경 시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광주 탄소중립 시범도시 특별법'을 제정, 광주를 신재생에너지, 전자자동차, LED 시범도시로 지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진곡산단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소재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그린-카 기업 240개의 창업을 지원, 연 매출 16조원에 일자리 2만개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광주를 실버산업의 국가적 시범단지로 조성하고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남을 동북아 해양관광대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신안

안철수 “내각 참여 않겠다”

광주·전주 세를이… 새정치 위해 투표 참여 호소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후보 사퇴 이후 처음으로 10일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와 전주를 잇따라 방문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원활동을 벌이며 호남 세를이에 박차를 가했다.

안 전 후보의 사퇴 이후 야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 이번 안 전 후보 방문이 '문-안 연대'를 통해 다시 한번 호남 표심을 결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 전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과 '번개 만남' 형식으로 만나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해 12월19일 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안 전 후보를 보기 위해 지지자와 시민, 민주당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안철수”를 연호하며 박수 갈채를 보냈다. 일부

시민들은 꽃다발과 인형, 목도리 등을 안 전 후보에게 선물하는 등 안 전 후보에 대한 식지 않은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안 전 후보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답례를 했다.

안 전 후보는 선거법위반 등을 고려해 마이크를 잡지 않은 채 육성으로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한 뒤 “다음 번 호남 표심을 결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 전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과 ‘번개 만남’ 형식으로 만나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해 12월19일 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안 전 후보를 보기 위해 지지자와 시민, 민주당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안철수”를 연호하며 박수 갈채를 보냈다. 일부

통합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두 사람의 협력이 공동정부나 연합정부를 매개로 한 지분나누기로 오해받이신 안 된다는 인식도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안 전 후보는 “12월19일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소중한 날”이라며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해 꼭 투표에 참여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철수가 사퇴했다고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한 주변 분들이 있다면, 안철수가 꼭 투표를 해달라고 했다고 전해달라”고 거듭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날 호남 유세에는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 장하성·윤영관 국민정책본부장 등 안 전 후보 캠프 출신 인사들이 동행했다. 안 전 후보는 번개모임 직후 광주·전남 캠프 역할을 맡았던 지역대표위원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지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한 뒤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박주선 “박근혜 지지 여부 향후 입장 정리해 발표”

“새누리 입당·감금 언론보도 사실 아니다”

무소속 박주선의 의원은 10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 대해 “향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새누리당 입당 및 박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지자들에게 의해) 감금됐다거나 지지자들이 끌고 갔다는 식의 언론보도도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정치적 행보는 지지자들과의 상의 없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언론에 따르는 예기와 관련해 향후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채 지지자들과 함께 향후 행보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일부 언론을 통해 “지금 산속에서 지지자들과 박 후보 지지 여부를 놓고 토론하고 있으나 지지자들을 설득하기에 난공불락”이라며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박 후보 지지를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박 후보를 지지하려 면 (내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세계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계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계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계보청기

www.segistar.co.kr



대한민국입니다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 (합곡동점) 02-2276-0587, 9 강남점 (강남고대점) 02-3477-5110, 2호점 (금강점) 02-733-0220, 송파점 (선릉역 2번 출구) 02-419-3388, 신동점 (선릉역 2번 출구) 02-686-1838, 경기 안양점 (구.사민회관 앞) 031-421-2288, 부평점 (부평역 앞) 031-517-5110, 수원점 (남문 앞) 031-246-5110, 의정부점 (의정부역) 031-821-6655, 안양점 (백산소동) 031-468-0110, 1 평택점 (평택역 앞) 031-658-5110, 용인점 (용인내거리) 031-336-1090, 오산점 (국인은행 2층) 031-378-4183, 부천점 (롯데백화점 앞) 031-329-4400, 남양주점 (내호점) 070-8829-9003, 부산 서면점 (서면역) 051-818-8800, 서면점 (서면역) 053-425-4440, 삼척점 (삼척내거리) 053-426-1511, 남동점 (마사지) 052-268-2283, 경남 마산점 (마산역) 055-287-6060, 진주점 (중앙역) 055-746-9870, 대구 동인점 (동인내거리) 053-425-4440, 삼척점 (삼척내거리) 053-426-1511, 남동점 (마사지) 052-268-2283, 경북 포항점 (포항역) 054-244-5110, 안동점 (구.안동고대점) 054-689-2248, 광주 광주점 (구.도정 앞) 062-225-5110, 광주점 (백운점) 062-651-4477, 전남 순천점 (중앙사거리) 061-752-8846, 전북 완주점 (완주역) 063-252-5728, 군산점 (구.서빙문 앞) 063-446-0198, 익산점 (익산역) 063-208-5000, 남원점 (남원내거리) 063-832-2826, 대전점 (대전역) 042-254-5110, 대전점 (충무로점) 042-222-3388, 대전점 (대전역) 042-255-9300, 충남 천안점 (천안역) 041-553-2888, 충청점 (충주역) 041-825-5110, 충북 충주점 (충주역) 043-753-5110, 충북 충주점 (충주역) 043-753-5110, 충청점 (충주역) 043-753-5110, 제주 제주시점 (제주시역) 064-753-436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한국식용의약품 FDA허가인증, ISO 9001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인증, GMP 제조공정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계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광주 권도형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박운광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1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1752-8845